

< 한눈에 보는 설교 >

시	주(2020.5.3)	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!  시편 1편 1-6절
제 목	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!	
본 문	시편 1편 1-6절	
요 약	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.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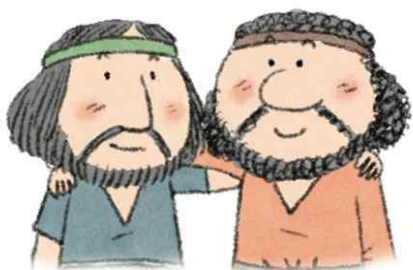
	연결하기	기억하기
설교 개요	5월에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요. <u>1편 암송을 들어 보세요.</u>	※ 시편 1편을 직접 암송하거나, 암송하는 영상을 보여 주세요(교사, 학부모, 교역자, 성도의 참여 가능).
	<u>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알려줘요.</u>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. ‘묵상’은 무엇일까요?	
	<u>묵상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.</u> 묵상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해요. <u>여러분은 언제 즐거운가요?</u> 게임을 할 때,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볼 때?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	
	<u>묵상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.</u>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.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질문하는 거예요. 일어날 때, 밥 먹을 때, 친구와 놀 때, 항상 말씀을 생각해요.	
	<u>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요.</u> 행복한 사람은 물이 많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아요. 가까운 곳에 물이 있으면 나무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.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 맺는 믿음의 열매를 칭찬하실 거예요.	
	<u>하지만 나쁜 사람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는 거와 같아요.</u> 열매가 전혀 없는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게 될 거예요.	
	<u>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.</u>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.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.	

< 한눈에 보는 설교 >

시	주(2020.05.10)	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!  시편 8편 1-9절
제 목	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!	
본 문	시편 8편 1-9절	
요 약	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.	

	연결하기	기억하기
설교 개요	<u>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서울에 있는 높이 555미터 ‘롯데타워’예요.</u>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829미터 ‘버즈 칼리파’예요. 이렇게 높은 건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? <u>사람이 만든 높은 건물, 멋진 작품을 보면 누구라도 감탄해요.</u>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요. <u>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노래해요.</u>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높여요.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일까요? <u>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.</u> 하나님은 손가락만으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.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. 하나님이 물고기, 새, 땅 위의 짐승, 기어 다니는 동물, 다양한 곤충까지 모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. <u>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셨어요.</u>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,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는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. <u>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생각하면 사람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요.</u>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우러러보아야 할 만큼 하찮아요.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. <u>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셨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.</u> 세상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요. <u>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이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 라고 날마다 높여드려요.</u>	※ ‘롯데타워’, ‘버즈 칼리파’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세요.

< 한눈에 보는 설교 >

시	주(2020.5.17)	깨끗하게 살아요!  시편 15편 1-5절
제 목	깨끗하게 살아요!	
본 문	시편 15편 1-5절	
요 약	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요.	

	연결하기	기억하기
설교 개요	<u>가본 적 있나요?</u> 그곳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	※ 음악회에 갔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이끌어 주세요.
	→ <u>연주자가 준비한 연주를 잘 듣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어야 해요.</u>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때도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어요. 오늘 말씀에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요.	
	<u>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곳을 ‘거룩한 장막’, ‘거룩한 산’이라고 해요.</u>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?	
	<u>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해요.</u>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예요.	※ ‘거룩한 장막’과 ‘거룩한 산’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을 비유한 표현임을 설명해요.
	<u>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깨끗한 말을 해요.</u> 입으로만 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, 마음에서 우러나온 착한 말을 해요. 다른 친구를 홍보거나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. 남의 잘못을 일부러 들추지도 않아요.	
	<u>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남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아요.</u>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애써요.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남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요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.	
	<u>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.</u>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해요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, 더러운 삶은 버려요.	※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행동을 생각해보고,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로 마무리해요.

< 한눈에 보는 설교 >

시	주(2020.5.24)	말씀을 소중히 여겨요!  시편 19편 7-14절
제 목	말씀을 소중히 여겨요!	
본 문	시편 19편 7-14절	
요 약	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요.	

	연결하기	기억하기
설교 개요	<u>갈 때 오직 한 가지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면, 무엇을 가져가고 싶나요?</u> → <u>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, 모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고를 거예요.</u> 시편 19편에서 시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요. <u>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해요.</u> 금은 값진 보석이고, 꿀은 달콤한 음식인데, 시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금이나 꿀보다 더 소중하다는 표현이에요. → <u>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길까요?</u>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<u>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.</u>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믿을만해요. 힘이 없고 지친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요. <u>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요.</u> 맑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좋아해요. 바른 길을 깨닫게 되면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해요. <u>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.</u>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기에 잘못된 행동을 버려요. <u>시인의 소원은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.</u> 하나님 말씀이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이에요.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요.	※ 어린이들이 선택한 것과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이끌어 주세요.
		※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이끌어 주세요.

< 한눈에 보는 설교 >

시	주(2020.5.31)
제 목	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요!
본 문	시편 23편 1-6절, 하박국 3장 17-19절
요 약	다윗과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어요.

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요!



시편 23편 1-6절
하박국 3장 17-19절

	연결하기	기억하기
설교 개요	‘ <u>게임</u> ’을 해 보았나요? 데시벨 게임에서 는 큰 소리로 외치면 이길 수 있어요.	※ ‘데시벨 게임’은 낱말을 큰 소리를 외쳐 가장 높은 데시벨이 나오면 이겨요. 핸드폰 어플에서 ‘데시벨’을 다운받아 어린이들과 함께 게임해 보세요.
	→ <u>큰 소리로 외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.</u> 하나님 을 높이고 찬양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.	
	<u>다윗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.</u> 사무엘이 하나 님의 명령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 웠어요. 하지만 다윗을 미워한 사울왕 때문에 왕 이 될 때까지 늘 도망을 다녔어요.	※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을 피 해 도망 다니며 불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.
	<u>하박국 선지자도 힘들었어요.</u> 하나님이 하박국에 게 유다 나라가 곧 멸망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.	
	<u>다윗과 하박국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, 평안보다는 불안이 가득했어요.</u> 그들은 이런 상 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?	
	<u>다윗과 하박국은 하나님을 높였어요.</u> 다윗은 ‘여 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’ 라고 고백했어요. 하박국은 ‘나를 구원하시는 하 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’라고 고백했어요.	
	<u>내가 만약 다윗이나 하박국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?</u> 다윗이나 하박국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	
	→ <u>하나님은</u> 기쁠 때, 슬플 때, 평안할 때, 불안 할 때, 언제든지 <u>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늘 우 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!</u>	※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상관없 이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세요.
	<u>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‘용기’가 생겨요.</u> 용기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에요. 힘이 들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 났을 때,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되어요!	